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인식, 직업기초능력, 직업가치

이명훈*, 이상민**, 테라다 모리키(寺田盛紀)***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인식, 직업기초능력, 직업가치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며, 일반대학 1개교(4개 학과)와 전문대학 1개교(2개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37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에는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368부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로서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학 전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하여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직업기초능력을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에 대한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대학 학생들이 전문대학 학생들보다 직업기초능력이 우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생들의 직업가치는 높았으며, '직업적 안정'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았고, '업무상 자유 및 도전'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전문대학 학생이 일반대학 학생보다 '직업적 안정'과 '업무상 자유 및 도전'에 대한 직업가치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적 안정'에 대한 직업가치가 높았다.

주제어 : 진로 관련 인식, 직업기초능력, 직업가치

* 이명훈(bluesky@cnu.ac.kr)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일본 나고야대학 교육발달과학연구과 교수(名古屋大学 教育発達科学研究科 教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 입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삶의 목표와 일에 대한 가치관 등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학으로 입학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경미, 2010). 실제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에 관한 것이었으며(장세풍, 2013), 이러한 문제는 직업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불만족 등 학생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이직, 재취업 준비에 따른 인력 낭비 등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지식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적응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조봉환 외, 2012). 직업기초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공통적인 직업능력으로서(나승일 외, 2003), 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각종 대학 평가의 요인 중 하나로 취업률이 거론되면서 대학교육에서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이은화, 윤소정, 허승희, 2011).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에서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이 만족할만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이용길, 강경희, 2013). 따라서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경우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직업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보영, 2013). 왜냐하면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안강현, 이용환, 1998). 따라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을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인식, 직업기초능력, 직업가치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인식을 구명한다.
- 둘째,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구명한다.
- 셋째, 대학생의 직업가치를 구명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직업기초능력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업능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나승일 외, 2003)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영역을 여섯 영역(업무 계획 및 추진,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외국어, 도구·공구 활용, 신체, 손님 응대)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 척도에 응답자가 반응한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나. 직업가치

한 개인이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관되게 작용하는 가치 기준, 또는 근본적 태도이다(정희영, 2013). 이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의 하위 영역을 다섯 영역(자아실현, 직업적 안정, 사회 참여 및 공헌, 업무상 자유 및 도전, 사회적 인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가치에 응답자가 반응한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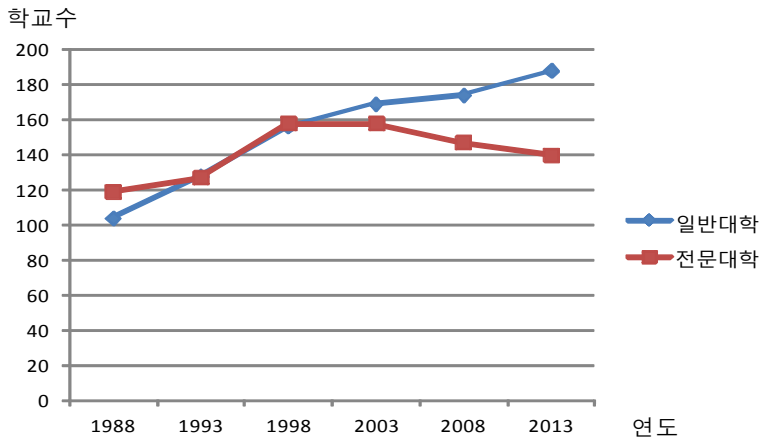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일반)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전편찬회 2014). 이와 같이 일반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나 국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 하는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수의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교육부, 2013). 2000년대 전까지는 전문대학의 수가 일반대학보다 많거나 같았으나, 2000년부터 일반대학의 수는 계속 증가한 것에 비하여 전문대학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수의 변화 추이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는 <표 1>과 같다(교육부, 2013). 일반대학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88년도	1993년도	1998년도	2003년도	2008년도	2013년도
일반대학 학생수 (여학생수)	1,003,648 (270,343)	1,092,464 (334,568)	1,477,715 (515,869)	1,808,539 (665,259)	1,943,437 (727,178)	2,120,296 (835,703)
전문대학 학생수 (여학생수)	266,844 (100,669)	456,227 (165,567)	801,681 (301,351)	925,963 (335,108)	771,854 (305,701)	757,721 (303,169)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 및 진학률 변화 추이는 <표 2>와 같다(교육부,

2013). 일반대학 학생보다 전문대학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연도별 취업률 및 진학률 단위 %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취업률	일반대학	51.9	54.5	56.2	55.6
	전문대학	55.6	60.7	60.8	61.2
진학률	일반대학	3.6	3.6	4.3	5.2
	전문대학	8.9	8.4	8.4	8.7

출처: 교육부(2013). 교육통계

2. 대학생의 진로 인식, 직업기초능력, 직업가치

가.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인식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직업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개인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곧 그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김병숙, 장부경, 2007).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박기문, 이규녀, 2009),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필, 심미영, 2014; 서희정, 윤명희, 2011). 그리고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진학, 개인 사업, 기타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이상록, 2007). 또한, 부모가 직업에 대한 신념과 지식 형성에 중요한 자원이며 부모의 진로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r & Whiston, 2008; Otto, 2000; 이현주, 2010에서 재인용).

나.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공통적인 직업능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나승일 외, 2003)을 의미하며, 이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이 미래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기초능력이다(진미석 외, 2007). 대학 차원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직업기초능력의 요소를 도출하거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대졸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은화, 박정희, 2009).

충청권의 2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광식, 김미영, 최완식, 2005)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문서 이해능력'과 '국제감각능력'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농업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정철영 외, 2001)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기초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정진, 2011; 안광식, 김미영, 최완식, 2005).

다. 대학생의 직업가치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요인이 되며(안강현, 이용환, 1998),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김현주, 2007).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직업가치의 유형화 연구(김수정, 2013; 안강현, 이용환, 1998 등), 직업가치가 미치는 영향(정희영, 2013; 최보영, 2013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박현주, 2007; 장경혜, 2008 등)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가치는 전문대학 학생이 일반대학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장경혜, 2008),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숙, 박현주, 2007; 박현주, 2007).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일반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다. 전국에는 총 188개의 일반대학과 140개의 전문대학에 총 852,900명(일반대학 500,624명, 전문대학 352,276명)의 1학년 학생이 있다(교육부, 2013)¹⁾. 연구를 위하여 A 일반대학의 4개 학과 214명의 학생과 B 전문대학의 2개 학과 159명의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¹⁾ 2013학년도 대학 신입생수는 총 531,112명이다(일반대학 336,066명, 전문대학 195,046명).

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크게 4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진로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두 번째 영역은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세 번째 영역은 직업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네 번째 영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표 3> 질문지의 구성

조사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진로 관련 인식		9
직업기초능력	업무 계획 및 추진	6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5
	외국어	3
	도구·공구 활용	3
	신체	3
	손담 응대	2
직업가치	자아실현	6
	직업적 안정	6
	사회 참여 및 공헌	6
	업무상 자유 및 도전	4
	사회적 인정	3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총 문항수		59

가. 진로 관련 인식 조사 문항

진로 관련 인식 조사 문항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로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문항수는 총 9문항이며, 응답방식은 응답유형을 미리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나. 직업기초능력 척도

직업기초능력 척도는 총 22문항(표 4)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할 수 없다, 2점: 별로 할 수 없다, 3점: 조금 할 수 있다, 4점: 할 수 있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영역별 평균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능력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는데 0.739~0.82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6개의 요인들이 전체 변량

의 64.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업무 계획 및 추진' 영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영역의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외국어' 영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도구·공구 활용' 영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신체' 영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손님 응대' 영역의 2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직업기초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업무 계획 및 추진	1	0.73	0.12	0.01	-0.04	0.14	0.06
	2	0.64	0.12	0.06	0.05	0.14	0.30
	3	0.61	0.15	0.14	-0.01	0.34	0.09
	4	0.69	0.22	0.07	0.03	0.08	0.15
	5	0.59	0.40	0.12	0.08	0.02	-0.09
	6	0.52	0.12	0.31	0.28	0.07	0.25
의사 소통 및 규칙 준수	7	0.36	0.44	0.34	0.10	0.03	0.20
	8	0.33	0.50	0.25	0.00	0.12	0.23
	9	0.10	0.71	-0.07	-0.15	0.12	0.11
	10	0.34	0.72	0.06	0.02	0.14	0.00
	11	0.12	0.71	-0.01	0.03	0.05	0.09
외국어	19	0.19	0.19	0.78	-0.05	0.10	0.15
	20	0.16	0.10	0.86	-0.08	0.19	0.05
	21	-0.01	-0.15	0.77	0.06	0.10	-0.06
도구· 공구 활용	25	-0.01	0.07	-0.11	0.82	0.12	0.16
	26	0.06	0.02	-0.02	0.89	0.15	0.05
	27	0.07	-0.15	0.08	0.81	0.09	-0.03
	28	0.19	0.12	0.08	0.12	0.85	0.12
신체	29	0.15	0.14	0.12	0.12	0.83	0.13
	30	0.17	0.06	0.19	0.18	0.73	-0.04
손님 응대	23	0.17	0.10	0.11	0.05	0.08	0.84
	24	0.21	0.17	0.01	0.12	0.09	0.81
고유치	3.01	2.42	2.35	2.33	2.28	1.75	
설명변량(%)	13.70	11.02	10.66	10.59	10.38	7.97	
누적변량(%)	13.70	24.71	35.37	45.96	56.34	64.31	

다. 직업가치 척도

직업가치 척도는 Terada(2009)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고등학생들의 직업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표 5>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2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3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 4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영역별 평균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는데, 0.664-0.821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5개의 요인들이 전체 변량의 56.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자아실현' 영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직업적 안정' 영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사회 참여 및 공헌' 영역의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업무상 자유 및 도전' 영역의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사회적 인정' 영역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직업가치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자아 실현	4	0.55	0.13	0.24	0.17	0.00
	6	0.83	-0.02	0.10	0.11	0.07
	7	0.65	0.14	0.34	-0.16	0.21
	12	0.79	-0.01	0.09	0.10	0.10
	23	0.53	-0.17	0.28	0.30	0.28
	29	0.57	0.14	0.19	0.44	0.00
직업적 안정	3	0.07	0.57	0.15	0.08	-0.23
	8	-0.05	0.76	-0.11	-0.10	0.26
	9	-0.07	0.80	-0.06	-0.01	0.32
	22	-0.11	0.59	0.25	0.38	0.00
	24	0.02	0.79	0.09	0.02	0.07
	25	0.31	0.55	0.12	0.16	-0.06
사회 참여 및 공헌	14	0.17	0.32	0.59	0.16	-0.06
	16	0.26	0.00	0.50	0.13	0.01
	18	0.17	0.11	0.78	0.02	0.15
	19	0.11	0.14	0.67	0.13	0.31
	21	0.41	-0.04	0.47	-0.13	0.43
	27	0.23	-0.04	0.50	0.42	0.09
업무상 자유 및 도전	13	0.00	0.19	-0.04	0.66	0.14
	26	0.41	-0.23	0.39	0.43	0.27
	28	0.26	0.14	0.28	0.66	-0.04
	30	0.41	-0.15	0.24	0.51	0.19
사회적 인정	10	0.02	0.20	0.10	0.26	0.71
	15	0.14	-0.05	0.48	0.21	0.52
	17	0.32	0.15	0.17	-0.04	0.59
고유치		3.68	3.25	3.13	2.23	1.94
설명변량(%)		14.71	12.98	12.51	8.93	7.74
누적변량(%)		17.71	27.69	40.19	49.13	56.87

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문항은 성별, 연령, 학과 전공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수는 총 3문항이다. 그리고 문항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 유형(일반대학/전문대학)을 묻는 문항은 질문지에 포함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표집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하였다. 응답방식은 응답유형을 미리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직접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었다. 회수된 373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36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6>과 같다. 학교 유형은 총 368명의 학생 중 일반대학 재학생이 57.6%(212명), 전문대학 재학생이 42.4%(156명)이었으며,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전체의 32.9%(121명), 여학생이 67.1%(247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과가 치위생학과와 주얼리디자인학과로 여학생들이 많은 학과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2013년 3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 31.5%(116명), 만 19세 미만이 68.5%(252명)로 만 19세 미만, 즉 재수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수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6> 응답자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 유형	일반대학	212	57.6
	전문대학	156	42.4
성별	남학생	121	32.9
	여학생	247	67.1
연령(13년 3월 1일 현재)	만 19세 이상	116	31.5
	만 19세 미만	252	68.5
전공 학과	정치경제	84	22.8
	교육	24	6.5
	경영	57	15.5
	자유전공	47	12.8
	치위생학과	119	32.3
	주얼리디자인학과	37	10.1
전체		368	100

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에 있어 유의수준은 5% ($\alpha=0.05$)로 설정하였고, 양방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 통계치 분석과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진로 관련 인식

가. 졸업 후 진로 희망

졸업 후 진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취직'(59.8%)이 가장 많았고, '미정'(17.9%), '진학'(17.1%), '기타'(5.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 후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로 진학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도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으로의 취업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창업', '공무원 시험 준비', '로스쿨 진학'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취직'(39.2%)이 가장 많았으며, '미정'(28.8%), '진학'(25.9%)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취직'(87.8%)이 가장 많았으며, '진학'(5.1%), '기타'(3.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학생들의 '미정'(28.8%)이 많은 것은 응답자들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생들이어서 졸업 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졸업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3.2%)이 적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취직'(42.1%)이 가장 많았으며, '미정'(28.1%), '진학'(21.5%)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취직'(68.4%)이 가장 많았으며, '진학'(15.0%), '미정'(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졸업 후 진로 희망

구분		진학	취직	기타	미정	계	χ^2
학교 유형	일반대학	55 (25.9%)	83 (39.2%)	13 (6.1%)	61 (28.8%)	212 (100%)	92.021***
	전문대학	8 (5.1%)	137 (87.8%)	6 (3.8%)	5 (3.2%)	156 (100%)	
성별	남학생	26 (21.5%)	51 (42.1%)	10 (8.3%)	34 (28.1%)	121 (100%)	25.129***
	여학생	37 (15.0%)	169 (68.4%)	9 (3.6%)	32 (13.0%)	247 (100%)	
전체		63 (17.1%)	220 (59.8%)	19 (5.2%)	66 (17.9%)	368 (100%)	

***: p<0.001

나. 진로 결정 시기

진로 결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62.7%)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19.6%), '중학교'(13.3%), '초등학교 이전'(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50.3%)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27.0%), '중학교'(16.6%)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9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이전'이나 '대학교'는 없었다. 이를 통하여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주로 진로를 고등학교 때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진로 결정 시기

구분		초등학교 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χ^2
학교 유형	일반대학	10 (6.1%)	27 (16.6%)	82 (50.3%)	44 (27.0%)	163 (100%)	39.592***
	전문대학	0 (0%)	3 (4.8%)	59 (95.2%)	0 (0%)	62 (100%)	
성별	남학생	5 (5.6%)	13 (14.4%)	50 (55.6%)	22 (24.4%)	90 (100%)	3.599
	여학생	5 (3.7%)	17 (12.6%)	91 (67.4%)	22 (16.3%)	135 (100%)	
전체		10 (4.4%)	30 (13.3%)	141 (62.7%)	44 (19.6%)	225 (100%)	

***: p<0.001

다.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조사한 결과 '하고 있지 않음'(83.7%)이 '하고 있음'(16.3%)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이는 응답 대상자들이 1학년생이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 내용으로는 '외국어 학습', '자격증 취득', '봉사 활동', '운동', '관련 강의, 세미나, 프로그램 참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

구분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계	χ^2
학교 유형	일반대학	34 (17.0%)	166 (83.0%)	200 (100%)	0.147
	전문대학	24 (15.5%)	131 (84.5%)	155 (100%)	
성별	남학생	18 (15.4%)	99 (84.6%)	117 (100%)	0.116
	여학생	40 (16.8%)	198 (83.2%)	238 (100%)	
전체		58 (16.3%)	297 (83.7%)	355 (100%)	

라. 대학 전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학 전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됨'(62.9%)이 가장 많았으며, '조금 도움이 됨'(30.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5.1%), '도움이 되지 않음'(1.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점 만점에 3.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대학 전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조금 도움이 됨	도움이 됨	계	평균 ¹⁾	표준편차
6 (1.7%)	18 (5.1%)	107 (30.3%)	222 (62.9%)	353 (100%)	3.54	0.673

1) 1=도움이 되지 않음, 2=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조금 도움이 됨, 4=도움이 됨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전문대학 학생(평균 3.83)이 일반대학 학생(평균 3.32)보다 대학 전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더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대학 교육 목적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교육법전편찬회 2014)이며,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여학생(평균 3.66)이 남학생(평균 3.31)보다 대학 전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더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대학 전공과정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학교 유형	일반대학	198	3.32	0.723	-7.684***
	전문대학	155	3.83	0.467	
성별	남학생	115	3.31	0.754	-4.605***
	여학생	238	3.66	0.602	

1) 1=도움이 되지 않음, 2=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조금 도움이 됨, 4=도움이 됨

***: p<0.001

마.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함'(53.4%)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함'(33.2%), '별로 하지 않음'(11.2%), '전혀 하지 않음'(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점 만점에 3.1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

전혀 하지 않음	별로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계	평균 ¹⁾	표준편차
8 (2.2%)	41 (11.2%)	195 (53.4%)	121 (33.2%)	365 (100%)	3.18	0.709

1) 1=전혀 하지 않음, 2=별로 하지 않음, 3=가끔 함, 4=자주 함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참조). 일반대학 학생(평균 3.25)이 전문대학 학생(평균 3.07)보다 진로에 관해 부모와 대화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학교 유형	일반대학	210	3.25	0.711	2.434*
	전문대학	155	3.07	0.694	
성별	남학생	119	3.09	0.781	-1.558
	여학생	246	3.22	0.669	

1) 1=전혀 하지 않음, 2=별로 하지 않음, 3=가끔 함, 4=자주 함

*: $p < 0.05$

바.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 도움이 됨'(47.3%)이 가장 많았으며, '많이 도움이 됨'(27.5%), '별로 도움이 안 됨'(21.2%), '도움이 전혀 안 됨'(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점 만점에 2.98로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부모와의 대화 중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심리적 격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줌 등이 있었다.

<표 14>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이 전혀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조금 도움이 됨	많이 도움이 됨	계	평균 ¹⁾	표준편차
15 (4.1%)	77 (21.2%)	172 (47.3%)	100 (27.5%)	364 (100%)	2.98	0.808

1) 1=도움이 전혀 안 됨, 2=별로 도움이 안 됨, 3=조금 도움이 됨, 4=많이 도움이 됨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참조). 일반대학 학생(평균 3.09)이 전문대학 학생(평균 2.84)보다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학교 유형	일반대학	210	3.09	0.784	2.924**
	전문대학	154	2.84	0.820	
성별	남학생	119	2.97	0.858	-0.098
	여학생	245	2.98	0.784	

1) 1=도움이 전혀 안됨, 2=별로 도움이 안됨, 3=조금 도움이 됨, 4=많이 도움이 됨

** : p<0.01

2.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은 <표 16>과 같다. 직업기초능력 전체에 대한 인식은 평균 4점 만점에 3.00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평균 3.40)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손님 응대’(평균 3.25), ‘업무 계획 및 추진’(평균 3.22), ‘신체’(평균 3.00), ‘외국어’(평균 2.54), ‘도구·공구 활용’(평균 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직업기초능력이 ‘도구·공구 활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이론적 평균(2.5)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에 대한 능력이 가장 높고, ‘도구·공구 활용’에 대한 능력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¹⁾	표준편차
업무 계획 및 추진	359	1.83	4.00	3.22	0.46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359	1.40	4.00	3.40	0.44
외국어	359	1.00	4.00	2.54	0.81
도구·공구 활용	359	1.00	4.00	2.21	0.81
신체	359	1.00	4.00	3.00	0.72
손님 응대	359	1.50	4.00	3.25	0.60
전체	359	2.05	3.91	3.00	0.38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금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일반대학 학생(평균 3.11)이 전문대학 학생(평균 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 계획 및 추진’,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외국어’, ‘신체’ 영역에서 일반대학 학생이 전문대학 학생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구·공구 활용’ 영역은 전문대학 학생이 일반대학 학생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손님 응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7> 참조).

<표 17> 학교 유형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영역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업무 계획 및 추진	일반대학	207	3.31	0.47	4.500***
	전문대학	152	3.09	0.43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일반대학	207	3.48	0.44	4.541***
	전문대학	152	3.28	0.41	
외국어	일반대학	207	2.95	0.73	13.569***
	전문대학	152	1.99	0.56	
도구공구 활용	일반대학	207	2.13	0.77	-2.145*
	전문대학	152	2.32	0.85	
신체	일반대학	207	3.12	0.71	3.820***
	전문대학	152	2.83	0.71	
손님 응대	일반대학	207	3.30	0.59	1.604
	전문대학	152	3.19	0.61	
전체	일반대학	207	3.11	0.37	6.763***
	전문대학	152	2.85	0.35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금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 p<0.05, ***: p<0.001

전체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는 남학생(평균 3.11)이 여학생(평균 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어', '도구공구 활용', '신체'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계획 및 추진',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손님 응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8) 참조).

<표 18>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영역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업무 계획 및 추진	남학생	117	3.25	0.47	1.031
	여학생	242	3.20	0.46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	남학생	117	3.44	0.47	1.391
	여학생	242	3.37	0.42	
외국어	남학생	117	2.72	0.75	2.921**
	여학생	242	2.46	0.83	
도구공구 활용	남학생	117	2.38	0.82	2.741**
	여학생	242	2.13	0.79	
신체	남학생	117	3.28	0.70	5.227***
	여학생	242	2.87	0.70	
손님 응대	남학생	117	3.29	0.59	0.811
	여학생	242	3.24	0.61	
전체	남학생	117	3.11	0.38	3.802***
	여학생	242	2.95	0.37	

1) 1=할 수 없음, 2=별로 할 수 없음, 3=조금 할 수 있음, 4=할 수 있음

** : p<0.01, *** : p<0.001

3. 대학생의 직업가치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은 <표 19>와 같다. 직업가치 전체에 대한 인식은 평균 4점 만점에 3.21로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직업적 안정’(평균 3.42)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평균 3.29), ‘사회 참여 및 공헌’(평균 3.18), ‘사회적 인정’(평균 3.12), ‘업무상 자유 및 도전’(평균 2.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응답자들의 직업가치가 이론적 평균(2.5)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적 안정’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고, ‘업무상 자유 및 도전’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대학생의 직업가치

영역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¹⁾	표준편차
자아실현	360	1.00	4.00	3.29	0.54
직업적 안정	360	1.00	4.00	3.42	0.51
사회 참여 및 공헌	360	1.17	4.00	3.18	0.53
업무상 자유 및 도전	360	1.00	4.00	2.87	0.62
사회적 인정	360	1.00	4.00	3.12	0.64
전체	360	1.92	4.00	3.21	0.40

1) 1=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조금 중요함, 4=매우 중요함

응답자의 일반 특성(학교 유형,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직업가치는 전문대학 학생(평균 3.27)이 일반대학 학생(평균 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장경혜,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적 안정’과 ‘업무상 자유 및 도전’ 영역에서 전문대학 학생이 일반대학 학생보다 직업가치를 더 두고 있었으며, ‘자아실현’, ‘사회 참여 및 공헌’, ‘사회적 인정’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0> 참조).

<표 20> 학교 유형에 따른 직업가치

영역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자아실현	일반대학	208	3.31	0.53	0.684
	전문대학	152	3.27	0.56	
직업적 안정	일반대학	208	3.31	0.54	-5.142***
	전문대학	152	3.58	0.41	
사회 참여 및 공헌	일반대학	208	3.14	0.52	-1.534
	전문대학	152	3.23	0.54	
업무상 자유 및 도전	일반대학	208	2.79	0.59	-2.625**
	전문대학	152	2.97	0.65	
사회적 인정	일반대학	208	3.12	0.64	-0.173
	전문대학	152	3.13	0.64	
전체	일반대학	208	3.16	0.36	-2.468*
	전문대학	152	3.27	0.44	

1) 1=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조금 중요함, 4=매우 중요함

*: $p < 0.05$, **: $p < 0.01$, ***: $p < 0.001$

전체 직업가치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업적 안정'에 대하여 여학생(평균 3.49)이 남학생(평균 3.29)보다 더 직업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실현', '사회 참여 및 공헌', '업무상 자유 및 도전', '사회적 인정'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표 21> 참조).

<표 21>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영역	구분	빈도	평균 ¹⁾	표준편차	t
자아실현	남학생	119	3.33	0.54	0.943
	여학생	241	3.27	0.54	
직업적 안정	남학생	119	3.29	0.55	-3.551***
	여학생	241	3.49	0.47	
사회 참여 및 공헌	남학생	119	3.21	0.47	0.854
	여학생	241	3.16	0.55	
업무상 자유 및 도전	남학생	119	2.86	0.58	-0.218
	여학생	241	2.87	0.64	
사회적 인정	남학생	119	3.16	0.63	0.762
	여학생	241	3.10	0.64	
전체	남학생	119	3.20	0.36	-0.393
	여학생	241	3.21	0.42	

1) 1=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조금 중요함, 4=매우 중요함

***: $p < 0.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로서 취직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학 전공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하여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직업기초능력을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및 규칙 준수에 대한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대학 학생들이 전문대학 학생들보다 직업기초능력이 우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생들의 직업가치는 높았으며, '직업적 안정'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높았고, '업무상 자유 및 도전'에 대한 직업가치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전문대학 학생이 일반대학 학생보다 '직업적 안정'과 '업무상 자유 및 도전'에 대한 직업가치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적 안정'에 대한 직업가치가 높았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일반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대학에서는 이와 같이 대학 입학 후에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도록 도움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모두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진로교육센터 등에서 적절한 안내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이 일반대학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1년 뒤에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2년 동안의 대학 생활 동안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일반 강의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직업기초능력 중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향상시켜 줄 프로그램도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안강현, 이용환, 1998)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업가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직업가치를 알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학생들의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필, 심미영(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교육법전편찬회(2014). **교육법전**. 교학사.
- 교육부(2013). **교육통계**. 교육부.
- 김병숙, 박현주(2007).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직업정보요구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0(3), 149-171.
- 김병숙, 장부경(2007). 희망직업이미지와 자기이미지 일치성이 대학생의 진로경로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27-44.
- 김수정(2013).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1), 93-117.
- 김현주(2007). **기혼여성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나승일 외(2003). **기초직업능력 영역 설정 및 표준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 노정진(2011).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과 학생특성별 차이 연구. **HRD연구**, 13(2), 105-125.
- 박기문, 이규녀(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2), 103-127.
- 박현주(2007).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직업정보요구도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서희정, 윤명희(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17-134.
- 안강현, 이용환(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1-18.
- 안광식, 김미영, 최완식(2005).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0(1), 96-105.
- 이경미(2010). **전문대학생의 일반적인 개인 특성 및 성격 5요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상록(2007).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영향-지방대학생의 대학생활태도 및 진로준비 행동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7(1), 253-270.
- 이용길, 강경희(2013). 공학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전공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분석. **공학교육연구**, 16(1), 27-34.

- 이은화, 박정희(2009). 남녀 대학생의 취업준비 학습실태 및 직업기초역량 교육의 속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2(2), 141-166.
- 이은화, 윤소정, 허승희(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직업교육연구**, 30(4), 51-67.
- 이현주(2010).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진로행동유형 및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23(4), 151-171.
- 장경혜(2008).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1), 110-122.
- 장세풍(2013). **대학생 고민, 진로·대인관계 순**. 내일신문, 2013년 4월 8일 기사.
- 정철영 외(2001). 농업계열 전문대학 재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2), 1-21.
- 정희영(2013). 미용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9(3), 466-474.
- 조봉환 외(2012). 기초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229-261.
- 진미석 외(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보영(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1), 1-18.
- Terada, M. (2009). Comparative education-cultural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vocational views and values as a challenge of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As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1), 49-62.

<Abstract>**Career Cognition, Key Competency, Vocation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Myung-Hun Lee*, Sang-Min Lee**, Moriki Tera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areer cognition, key competency, vocation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population sample for the study constituted 368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sample of 373 freshmen-women of university and students. A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career cognition items, key competency scale, vocational values scal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tems. The construct validity of key competency scale and vocational values scale were confirmed by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and junior college students most wanted to get a job after graduate. Many students decided their career at high school days. Many students were not prepared for their career after graduate. They recognized that major curriculum of university and junior college was very helpful to prepare their career. And many students discussed with their parents about their career.

Second, key competency of them was moderately high. In the items of key competencies, 'communication and following' was the highest. And key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as better than that of junior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y of male students was bett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ird, vocational values of them were high. In the items of vocational values, 'occupational stability' was the highest, and 'work in freedom and challenge' was the lowest. 'Occupational stability' and 'work in freedom and challenge' of junior colleg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university students. And 'occupational stability'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Key words : Career Cognition, Key Competency, Vocational Values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bluesky@cnu.ac.kr

** Korea University, leesang@korea.ac.kr

*** Correspondence: Nagoya University, terada.moriki@d.mbox.nagoya-u.ac.jp